



‘대숲에서 찾는 녹색미래’ 9월 청죽골서 펼쳐진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조선시대 시인 고산 윤선도(1587~1671)선생은 물(水)·돌(石)·소나무(松)·대나무(竹)·달(月)을 다섯 벗으로 꼽은 연시조 ‘오우가’(五友歌)에서 대나무에 대해 이렇게 읊었다.
 ‘대나무 고을’(竹鄕)으로 불리는 담양군이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담양읍 죽녹원 일원에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담양은 전국 대나무 식재면적의 34.3%(2420ha)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의 대나무 서식지이다.
 ‘대숲에서 찾는 녹색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대나무의 문화와 산업, 정보 등 대나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향연(饗宴)이다. 개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박람회 전시·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친환경 숲 죽녹원 ‘오감만족 체험’ 등 주제 전시·교육·체험 ‘다양한 볼거리’
 대향음악회·마당놀이·대숲소리 공연



종합 체육관에 조성되는 ‘체험교육구역’내 주제영상관 상상도. 담양과 대나무가 만들어 가는 미래 비전을 홀로그램과 대형 최신영상을 통해 제시하는 공간이다.

◇‘청죽골’에서 대나무 가치 재발견 =대나무 박람회장 면적은 31만3023㎡(전시 총면적 1만 7743㎡)에 달한다. 박람회는 크게 ▲죽녹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체험 구역’ ▲전남도립대학 운동장 일대의 ‘주제전시 구역’ ▲종합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교육 구역’으로 구분된다.

박람회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상징 게이트’는 대나무를 모티브로 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나무 조형물과 함께 건축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주제체험 구역은 담양과 죽녹원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담양 대나무관’을 비롯해 전통문화와 현대 미디어 아트를 통한 대나무를 새롭게 인식



할 수 있는 ‘대나무 미디어 아트관’, 오감을 자극하는 죽녹원에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오감(五感) 데라피 체험공간’, 대나무의 전통 민속놀이와 대나무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대나무문화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주제전시 구역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과 함께 해온 대나무 문화를 소개하는 ‘대나무 생태·문화관’, 대나무의 산업적 가치와 대나무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대나무 미래성장관’, 국내외 대나무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대나무기업관·대나무 국제관’이 들어선다.

체험교육 구역은 홀로그램과 대형 최신영상을 통해 대나무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주제영상관’과 대나무를 이용한 창의력 창작체험을 할 수 있는 ‘대나무 교육관’, 담양 대표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과정을 보여주고 친환경 농식품을 전시·판매하는 ‘친환경농업 교육관’, 대나무박람회를 계기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나무 가치를 소개하는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홍보관’이 배치된다.

◇세계대나무 총회도 함께 열려=담양군이 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나선 까닭은 ▲녹색미래를 이끌 자원인 대나무의 인문학적 가치 ▲산업자원의 가치 ▲지속가능한 환경수준으로서의 가

치를 알리고자함이다. 박람회 기본 방향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해 사후관리에 부담이 없는 ‘경제박람회’, 규모보다는 콘텐츠로 승부하는 ‘작지만 강한 박람회’, 죽녹원을 지붕없는주제관으로 하는 ‘친환경 박람회’를 표방하고 있다. 메인 행사장인 죽녹원은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는 오감만족의 공간, 관람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둔 능동적 체험의 공간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공연행사는 대향음악회와 대나무 마당놀이, 줄타기 공연, 대숲소리 대숲가라, 멀티미디어쇼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인 대향음악회와 마당놀이는 담양지역 공연팀들의 상설무대로 꾸며지고, 줄타기 공연은 줄타기 기능보유자인 김대균 선생과 함께 전통연희단이 펼치는 무대로 장식된다.

‘대숲소리 공연’은 대나무 악기들을 한데 모아 선보이며, ‘멀티미디어 쇼’는 관람객을 형형색색으로 몰들이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밖에도 박람회 기간중에 세계대나무협회(WBO)가 주관하는 ‘제10차 세계 대나무총회’(World Bamboo Congress)도 함께 열린다. 총회를 통해 대나무와 관련된 교육·환경·문화·산업·기술연구 등에 관한 학술회의를 비롯해 대나무에 관심있는 개인과 기업, 단체, 연구기관 등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세계대나무 협회와 담양군은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건축·교통·생활용품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향후 산업을 모색하는 ‘세계 대나무 산업화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rg@kwangju.co.kr



박람회 메인 장소인 죽녹원 대나무 숲길.



주제체험구역에 만들어지는 ‘담양 대나무관’ 프로젝트 영상.

www.hyundai-hosp.co.kr
새해 맞이

광주현대병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진과 시설로 고객님의 한분 한분 최선을 다하는 광주현대병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현대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91(용봉동) 북부경찰서와 융통IC 사이
 | 대표전화 | 062-570-0114 | 응급실 | 062-570-0119

☎진료시간 | 평일 오전 09:00~오후 6:00 | 토요일 | 오전 09:00~오후 1:00 | ☎응급실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